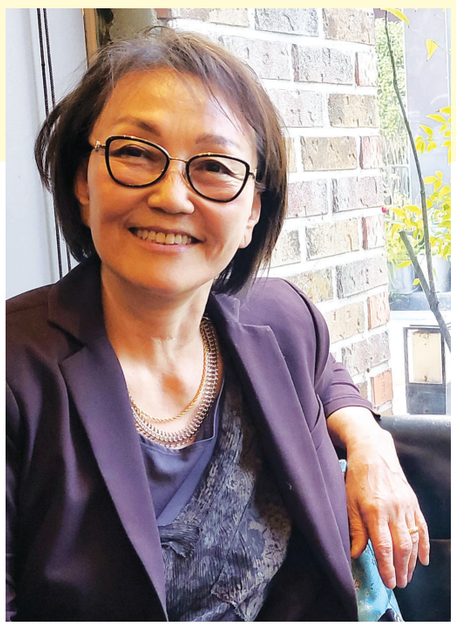
“어머니에게 고흥은 예술적 감성 전해준 탯줄 같은 곳”

〈천경자 화백〉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특별전 총감독 맡은 둘째 딸 김정희 교수
“고향서 단독전 의미 깊어…저항정신 깃든 예술도시 광주 남다른 감회”



천경자 화백 둘째 딸 김정희 교수

천경자 작 ‘길례 언니 II’

“어머니가 뱀 그림을 그리던 시절 광주역 인근에는 뱀집이 있었습니다. 유리 상자에 뱀을 수십 마리 넣고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는 기이하고 이색적인 풍경이었죠. 집안이 어려워져 고흥에서 광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다고 들었어요.”

최근 예술의거리 한 카페에서 만난 천경자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수미타 김) 미국 몽고메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스케치하던 모습이 회상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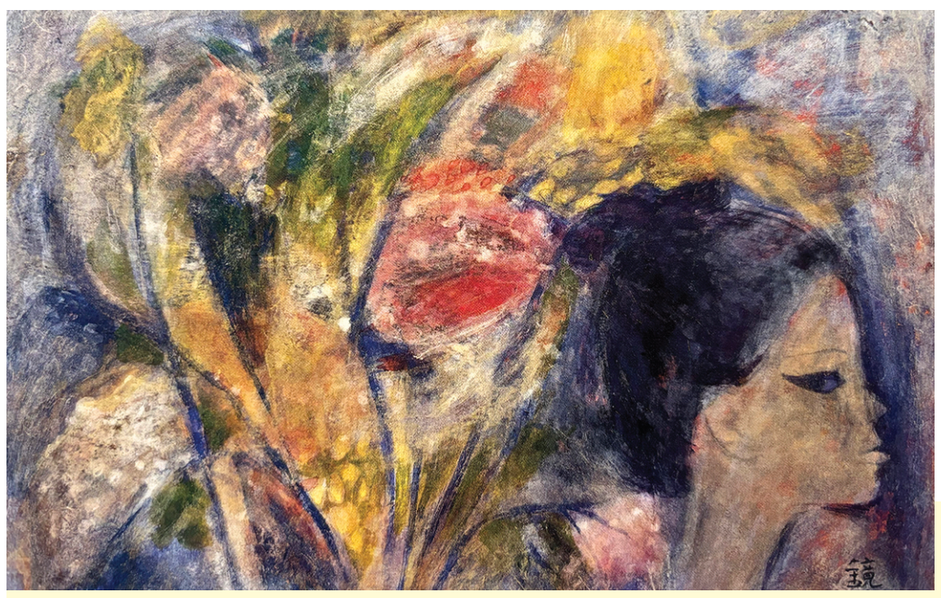
올해 만 70세인 김 교수는 첫눈에도 젊은 시절 천경자 화백을 많이 닮은 모습이었다. 그는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28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아메리칸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메릴란드대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누구 누구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는 말에서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머니의 짙은 그림자가 가늠이 되었다.

교수가 되기 전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하던 때였다. 어느 날 한국에서 기자가 왔는데 “천경자 씨 딸 아니세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태연하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만큼 “철이 없었다”며 웃었다.

이후 그는 어머니처럼 그림을 그리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예술적 재능과 감성 등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모전여전(母傳女傳)인 셈이다.

김 교수는 “어머니는 사생실력이 뛰어난 분이었다. 특히 움직이는 뱀 그림은 지금 봐도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물어 본적 있는데 어머니는 ‘한 시간 정도 바라보고 있으면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사생 훈련 등을 많이 받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찬란한 전설’ 특별전 총감독을 맡아 전시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화가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유일의 단독 전시”라는 말에서 특별전 의미가 읽혀졌다.



천경자 작 ‘소녀’

김 교수는 10여 년 전 광주 예술의거리에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광주비엔날레 일환으로 북한미술전이 열렸는데 남편인 문범강(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이 감독을 맡았다. 남편과는 유학 중에 만났고 이후 결혼하고 미국에서 줄곧 살고 있다.

그는 “이전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광주에 오면 늘 감회가 늘 새롭다”며 “내가 태어난 도시이자 무엇보다 아버지(김남중 옛 전남일보 창업주, 광주일보 전신)와 어머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다. 현재는 ‘전일빌딩245’로 이름이 바뀐 ‘전일빌딩’을 볼 때면 건물에 투영된 역사성과 가치 등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예술정신이 깃든 도시”라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성이 어머니의 예술관과 닮아 있다”고 덧붙였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유일의 단독 전시인 만큼 그동안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작품 대여가 가장 어려웠다. 대도시도 아닌 반도 끝자락 고흥이라는 점, 소장자들이 김 교수를 잘 모른다는 점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대여를 위해 여러 문화기관 관계자, 개인 소장가 등을 만나 전시 의미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며 “나중에는 특별전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끼는 소장품 출품을 흔쾌히 결정해주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전은 “전시를 매개로 그림을 나누는 마음, 작품 소장 의미 등을 다양한 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진심이 통했을까. 전남도립미술관 채색화 2점, 광주시립미술관 스케치 등 10여 점을 포함해 모두 58점이 모아졌다. 물론 그림을 모으기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 보험을 비롯해 운반, 보관, 항온항습 등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다. 가장 큰 과제는 분청문화박물관이 미술 전문 갤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걸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는 점이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 고흥 어머니 생가 등에 다녀온 이야기도 꺼냈다. 현재 생가는 주민의 소유자로 돼 있지만, 거주하지 않아 마당에 풀이 무성한 상태다. 김 교수는 향후 군 차원에서 복원 계획이 진행돼 어머니 생가가 옛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흥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펼쳐져 있는데 마치 여인의 젖가슴 같은 모습이었어요. 바다 색깔도 예쁘고…. 고흥의 풍광과 다감한 정서는 천경자라는 거목을 자라게끔 해준 자양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 예술세계를 전해준 탯줄 같은 곳이죠.”

“진한 남도 사투리는 어머니의 평생 페르소나의 한 축이었다”는 김 교수의 말에서는 모든 고향은 작가에게 예술적 DNA를 물려주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말이 연상되었다. 특히 어릴 때 봉황산에 올라 처음 본 바다 빛깔에서 어머니가 시각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도 들려줬다. 유년시절부터 듣고 자란 남도 판소리, 육자배기는 예술적 감성을 키워준 중요한 문화자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경자 화가는 전통적인 한국화에 머물지 않았다. 환상적인 세계관을 결합해 짙은 색채의 채색화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천경자 화백은 그림 외에도 글을 매개로 대중들과 소통했다. 주옥같은 수필집도 많이 남겼는데 영화와 문학을 좋아했다. 문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했으며 특히 박경리 소설가와 소통을 많이 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김 교수는 “현재 미국에는 천경자 재단이 없다. 남편과 비영리재단을 만들었는데 올해 ‘제1회 천경자상’을 제정해 선정할 계획”이며 “천경자가 20세기 화가들과 견주어도 독창성 면에서 뒤지지 않는데 미국 국회도서관에 영문 도록이 없다. 영문 도록을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00주년 특별전을 위해 지원을 해준 고흥군과 전남도, 소장품 대여자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범한 시민들이 꽃피우는 선율 ‘ACC 시민오케스트라’

2~3일 ACC 예술극장 극장1
생활예술음악인 150여명 참여

‘ACC 시민오케스트라’ 단체 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평범한 시민들이 활대를 쥐고 바이올린 현을 긋는다. 첼로와 플루트, 클래식 드럼 등 파트별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꽃피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이 ‘2024 시민오케스트라’ 공연을 오는 2~3일 각각 오후 5시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친다.

지역 생활예술음악인들이 모여 연주자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이며, 공모를 통해 시민 150여 명을 단원으로 선발했다.

그네신음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공부한 뒤 국립 울랴놉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등을 역임한 김병무가 지휘봉을 잡는다.

공연은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1번’으로 막을 올린다. 노르웨이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전통적인 멜로디와 문화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어 김효근 가곡 ‘눈’, 도플러의 ‘플루트 2중주 안단테&론도’를 비롯해 하차투리안 ‘가면무도회 중 왈츠’ 등이 울려 퍼진다.

베토벤의 ‘영웅 1악장’도 관객들을 만난다. 음악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곡은 교향곡의 형식과 길이, 화성 등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연자로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조용갑, 플루티스트 우이든·양시은이 출연할 예정.

김선옥 사장은 “단원들이 ‘클래식 연주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연습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해 130여 명 단원을 선발한 데 비해 올해는 20여 명 증원해 많은 시민들이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무료 관람, ACC재단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트날라리’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즐겨요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가 오는 2일 낮 12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올해 주제는 ‘안녕! 히어로~. 내면의 숨은 예술 감수성을 깨우는 ‘내 안의 히어로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문화예술교육축제에는 예술시민배움터 지원사업을 비롯해 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4개 분야 40개 단체가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히어로~’를 모티브로 진행된다. 개막행사 ‘안녕! 히어로~’, 폐막행사 ‘언제나 히어로’, 포토존 ‘내 안에 히어로를 만나요~’, 미션 ‘히어로를 찾아라!’ 등이 예정돼 있다.

2024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전시·공연·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지구를 위한 먹거리존’, 유관기관 협력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시민참여형 포토존 ‘내 안에 히어로를 만나요~’는 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자들이 오프닝 네트워킹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당일 시민들이 히어로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해 클로징 네트워킹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교육자와 향유자를 넘어 내 안의 ‘히어로’를 찾아 완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교육의 숨은 히어로인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네트워킹 파티도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2023년 구성된 문화예술교육 유아유관기관협의회의 일환으로 ACC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며 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의 일환으로 ACC, 광주서구문화원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협력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구를 위해 ‘용기’낸 당신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공연 및 전시는 당일 12시부터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체험 프로그램은 당일 12시 30분부터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노희용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아트날라리’는 문화예술을 즐기자는 의미로 추진돼 왔다”며 “여러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공유, 교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의미를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